

[발표문 1]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경험적 실증분석”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수준의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발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또는 최소한 경제 발전 초기단계에서만이라도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새로운 이론 모델과 경험적 증거들은 보다 평등한 소득 분배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배제한 조건 하에서 진행된 학계 및 IMF 의 연구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의 불평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소득의 기능적 분배(노동자가 생산한 만큼, 또는 사회에 공헌한 만큼 소득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장)와 관련해 국민소득 중 자본수익 비중이 높아야 저축률, 투자율,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내 임금 비중이 높아지면 소비뿐만 아니라 총생산, 투자의 균형 수준, 성장률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이 새로운 이론과 경험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소득재분배는 총수요(소비+투자+순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시장개방성, 조세 제도 등과 같은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국, 독일, EU 등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개발도상국 등 경제규모가 작고 시장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일부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임금이 설비가동률과 GDP 갭(잠재 GDP 성장률과 실질 GDP 성장률 차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단기 경기 사이클(경기 불황, 경기 회복)에서만 의미미할 뿐 장기간에 걸친 소득재분배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위 결과는 잠재성장률과 가동률 추정 오류로 인해 편향성을 보인다. 새로운 연구는 임금분배율에서의 노동생산성의 내생성을 통제할 경우, 이윤 주도 수요가 없어지는 대신 실질 임금이 GDP 갭이나 가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임금분배율 증가가 단기에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관련 연구결과는 다양한 조건들의 영향을 받는다. 생산직 근로자 임금 대비 관리자 임금, 기업 수익 대비 주주채권자 수입 등 소득분배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국제수지나 부채규모,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한다 해도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노동절약형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 감축에 대비해 재정 정책과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